

복식에 나타난 동물들, 그 상징의 세계

김 중 대(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과장)

1. 동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인식은 구비문학이나 민간신앙, 그리고 생활문화를 통해서 확인된다. 하지만 동물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만들어 졌을까 하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물을 단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되어 왔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고 이를 문화적인 배경으로 활용하였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문화적 바탕을 알려주는 기본적인 열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동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한 동물들을 상징화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그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그것은 단순히 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심성이나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밝혀내는데 활용될 수 있다.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한다. 하지만 민속문화의 큰 층위는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의 민속문화를 지탱하여온 조상들은 변화를 조금씩 생각하지 않았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시류에 대처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 변화의 흔적도 동물에게 부여된 다양한 상징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복식문화의 흔적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식이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그 복식에 수를 놓거나 문양으로 채택

한 것은 한국적 이해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그런 점에서 복식에 나타난 동물의 민속상징을 살펴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동물이 단순한 동물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보려는 의도 때문이다. 예컨대 동물의 상징은 복식문화에 담겨진 다양한 동물문양을 해명하는데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예이다.¹⁾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논문적 성격보다는 동물들의 상징들을 해명하려는 차원에서 서술된다.

2. 복식의 문양으로 채택된 동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²⁾

동물들이 문양으로 채택된 유형은 몇 가지로 집중된다. 적의(翟衣)와 활옷 등의 의례복, 곤룡포 등의 왕의 복식과 관복의 흉배, 그리고 첩지 등의 수식(首飾), 베갯모 등의 생활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동물의 문양이 채택되어 활용되었다. 이러한 문양에 삽입된 내용 이외에도 형태나 색을 근거로 하여 동물의 명칭이 사용된 예도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동물을 중심으로 논의 하되, 용만은 다를 예정이다. 용은 봉황이나 기린과 달리 왕을 상징하고 있는 동물이기는 하지만, 민중들에게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친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1) 이 글은 본인의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다른세상, 2001.)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거론하는 동물들 중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 책을 참고하길 바란다.

2) 이들 유형을 살펴보는 데는 김영숙의 《한국복식문화사전》(미술문화, 1998.)과 柳喜卿의 《韓國服飾史研究》(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75.)를 참고로 삼았다. 따라서 복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원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를 사용하지 않고자 한다.

1) 신, 그리고 왕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용

용이 우리 민족에게 나타난 이후 우리의 정신과 문화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다. 용은 다른 동물과 달리 세상에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상상의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의 상징은 거대한 것이다.

특히 용은 권력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호국용의 화신으로 자주 등장한다. 뱀이나 이무기 등이 용이 되어 여의주를 지니고 하늘로 승천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신격으로 자리잡는 존재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용은 신(神)이나 왕(王)의 상징적 동물로 인식되어 있다.

(1) 신으로 자리잡은 용

용을 신으로 좌정시킨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로 생각된다. 특히 중국의 용사상이 한국으로 전래되면서 이 상상의 동물은 권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사랍들 세계를 관장하는 신으로까지 좌정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용사상은 불교의 전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삼국유사》에 수록된 불법의 수호신으로 등장하는 기록 들은 그런 사실을 살펴보면 가장 좋은 자료이다.

용의 등장은 경상도지방의 팽철이나 견훤의 부계를 지렁이로 표현하는 것 등에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에서 신으로 모셔졌던 재래의 신들이 용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 왕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용

고려를 세운 왕건과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조상들도 용과 관련을 맺고 있다. 왜 한 나라를 건국한 왕의 출생가계에서 용이 중심적인 존재로 표현되고 있을까. 그것은 용이 왕을 상징적인 존재로 생각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들은 한나라를 건국한 왕의 가계도 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쉽게 찾아진다. 이러한 일들을 별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백성들에게 알리는데 유효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예컨대 백제 무왕의 출생담에서의 부계가 용이었

다는 사실이나 견훤의 부계를 지렁이로 내세운 일, 그리고 고려 왕건의 할머니가 용이었다는 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출생담의 신화적 장치로 용을 자신의 가계로 내세운 일 등이 그러하다. 특히 조선 후기에 와서 민중들의 희망을 담고 만들어진 아기장수이야기에서 아기장수의 겨느랑이에 비늘이 달려있다고 한 사실은 용의 자손이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한 장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왕과 관련한 신체적 명칭이나 의식주생활에서 사용하던 각종 도구 등에도 용을 접두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에서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낱말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용궐(龍闕) : 궁궐의 경칭

용루(龍淚) : 임금의 눈물

용수(龍鬚) : 임금의 수염

용안(龍顏) : 임금의 얼굴, 천안(天顏)

용평상(龍平床) : 임금이 앉는 평상, 용상(龍床)

용포(龍袍) : 임금이 입는 정복(正服), 곤룡포(袞龍袍)

임금의 얼굴은 용안(龍顏)으로 표현하는데, 이 기록은 《삼국사기》김유신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삼국시대에 벌써 왕의 얼굴을 용안으로 표기했다는 것은 용을 왕의 상징으로 표현하게 된 시기가 조선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한다. 이외에도 임금의 덕을 용덕(龍德), 임금이 즉위하는 것을 용비(龍飛)라고 한다.

(3) 벽사와 길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존재

용의 존재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귀면문(鬼面紋)이 용의 머리를 상징화시킨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서울지방에서 유행했던 문배속에서도 용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길상으로 용은 자주 사용된다. 등용문(登龍門)이라는 표현이나 용꿈을 꾸면 높은 벼슬로 나아가거나 재복이 들어온다고 말하는 것처럼 길한 존재이다. 특히 과거를 통해 벼슬

길에 오르는 것을 최고의 관심사로 여겼던 사대부들에게서 용의 존재는 가장 상서로운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등용문이라는 고사성어 자체가 벼슬길로의 진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은 그 자체로 벼슬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4) 물을 관장하는 수신(水神), 용왕

훈몽자회를 보면 용을 '미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미르'는 물(水)과 어원이 같다고 한다. 즉 물을 관장하는 존재로서 인식하여 왔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도 용이 출현하게 되면 뇌성벽력이 치고 비가 온다는 식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의 기록중에서 진평왕 50년 여름에 몹시 가물었는데 저자(市場)를 옮기고 용을 그려서 비를 빌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기우제의 한 현상을 보여주는데, 주목되는 것은 그림으로 그린 용을 모시고 기우제를 들었다는 것이다. 즉 기우제의 대상신으로 용을 모셨다는 것은 당시에 벌써 용이 수신을 관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간에서 전해오는 기우제의 풍속에서도 용이 중시되는 것은 이런 제의의 전통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기우제와 관련한 행사로 호랑이의 머리를 한강과 박연에 넣었다고 한 기록을 자주 만난다. 이것은 물속에 있는 용을 자극하는 행위로, 용이 화를 내면 비를 뿌린다고 하는 민간신앙적 사고방식의 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용왕의 존재도 불교와 관련지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佛敎大辭典》을 보면 용왕은 현세에 불법이 유행하지 않게 되면 용궁에서 경전을 수호한다는 것이다. 海龍王이 영취산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신심이 환희하여 부처님을 용궁으로 모셔 설법을 듣고자 했는데, 부처님이 허락을 하였다. 이때 용왕은 부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통로부터 용궁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용왕은 불교적인 의미와 달리 민간에서는 풍어와 해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바다의 신으로 인식되어 왔다. 용왕은 그런 점에서 물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다. 용왕이라는 표현은 《삼국사기》김유신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춘추가 고구려에 갔다가 잡혀 죽게 되었는데,

선도해(先道解)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이때 선도해가 말해준 일화가 그 유명한 거북과 토끼의 이야기(龜兔之說)다.

2) 신으로 좌정한 호랑이

우리 민족에게 호랑이는 무엇인가. 왜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마스코트로 호랑이를 선정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호랑이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호랑이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과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랑이를 산신으로 모셔왔다는 기록들을 참고로 한다면 일반적인 맹수보다도 더 의미있는 존재로 인식하였음이 분명하다.

(1) 믿음의 대상으로 자리잡은 호랑이

우리나라의 건국신화로 알려진 단군신화에서부터 호랑이가 등장한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신시를 베풀었는데,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기를 기원했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백일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지내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곰은 21일동안 참고 기다려 여자로 변신하였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굴 밖으로 뛰쳐 나갔기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적 표현 때문에 곰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환웅이라는 이주민이 곰을 숭배하는 종족과 정략결혼을 맺었다는 사실적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당시 한반도에서는 호랑이를 숭배하는 종족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기록으로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예에서는 '제호이위신(祭虎以爲神)', 즉 호랑이를 신으로 섬겨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다. 삼국 이전의 삼한 시대에 민간신앙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이 글로 미루어 본다면 당시 한반도에서는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는 제의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과 관련한 기사에서도 호랑이가 산신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고려사》를 보면 왕건의 6대조인 성골장군 호경과 관련된 기

록 중에서 호경이 여산신이었던 호랑이와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호랑이를 산신으로 인식하여 왔음을 잘 알게 한다.

하지만 도교의 유입으로 인해 산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좌정하면서 호랑이는 산신의 사자나 혹은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승되는 마을신앙 중에서 산신제나 성황제에서 마을을 수호하는 신으로 호랑이로 좌정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호랑이를 신격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오랜 전통임을 알게 한다.

(2)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호랑이그림

주술적인 의미를 지닌 호랑이그림은 호랑이가 지니고 있는 뛰어난 벽사능력, 즉 귀신을 쫓아내고 금압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먼저 문배속을 보면 정월이 인월(寅月), 즉 호랑이 달이기 때문에 호랑이그림을 대문에 붙이면 그 해의 잡귀들이 근접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월이 인월이라는 속설은 중국에서부터 전해진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호랑이가 갖고 있는 벽사능력, 즉 잡귀를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동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배속과 함께 삼재부에 그려진 호랑이도 그런 의미가 담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재부는 일반적으로 삼재에 걸린 사람에게 사용되는 부적의 하나로, 삼재는 물(水)·불(火)·바람(風)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앙을 의미한다. 대개 삼재부는 머리가 셋 달린 매 그림과 함께 호랑이가 그려진 삼재부를 많이 사용하였다. 호랑이를 삼재부의 중심동물로 그린 것은 매와 달리 야행성동물이라는 점과 잡귀를 능히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동물로 생각한 때문이다. 이외에도 호랑이와 함께 매를 그린 삼재부나 호랑이 외에도 관재부(官災符) 등 여러 가지 부적을 그린 형태 등도 전한다.

3) 신의 사자이자, 장수를 나타내는 거북

거북이는 오랜 옛날부터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영험하고 장수하는 동물로 알려져 십장생의 하나로 정착되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연

로하신 어른이 계신 집안에서 병풍을 만들 때도 거북은 꼭 끼여드는 동물의 하나이다. 이와 반대로 거북이의 습성을 반영해서 느낌보를 비유할 때 곤잘 사용된 동물이기도 하다.

(1) 미래를 예언하고 신의 뜻을 전달하는 거북이
거북이가 점복의 한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거북의 등을 불에 태워 갈라지는 것을 보고 점을 치는데, 이를 귀복(龜卜)이라고 한다.

거북이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는 백제 의자왕 때 일어난 변괴를 들 수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의자왕 20년의 사건들은 대개 백제의 멸망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였다. 그 중에서도 거북의 등에 기록된 내용은 백제의 멸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가락국기에 적혀있는 수로신화 관련기사에서도 거북은 이러한 신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수로가 나타나기를 기원하면서 부른 노래인 <구지가>는 그런 속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구지가는 수로부인의 일화에서는 또다른 의미로 전이되어 나타난다.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는 도중에 바다의 용이 나타나 수로부인을 납치해갔다. 용에게 납치당한 수로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위협을 가하는 대상물이 거북이로 나타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구지가와 해가가 동일한 존재물인 거북을 위협하므로서 얻고자 목적했던 기원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거북의 주술적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가락국기의 기록시기가 고려시대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물론 이 시기에 불리해진 주술적 성격을 띤 노래이기는 하지만, 가야와 신라시대를 걸쳐서 폭넓게 전승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북은 이 시기에 신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주술적 성격을 갖고 있는 존재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장수의 상징으로 나타난 거북이

거북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는 문방사우를 비롯하여 비석의 받침인 귀부(龜趺)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거북의

모습을 새긴 가장 큰 이유는 거북이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북은 십장생의 하나로 십장생도나 장수를 기원하는 글귀 등에서 빠지지 않고 나타난다.

거북이 장수를 상징한다는 것은 이 동물은 신성한 동물이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고구려의 고분에 그려진 벽화 중에서 사신도가 있는데, 여기에도 현무(玄武)라고 하여 거북을 상징한다. 현은 검은색으로 북쪽의 방위를 뜻하며, 죽은 이를 위해 지키는 신의 하나로 오래 전부터 자리잡았음을 알게 한다.

거북의 모습을 형상화한 내용과 달리 거북의 등무늬, 즉 귀갑문(龜甲文)도 다양한 용품에서 활용되었다. 이 귀갑문은 서역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실제로 거북의 등무늬를 본따서 만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공주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환두대도나 두침, 신발 등과 경주 황남대총에서 나온 은배를 들 수 있다. 이들 귀갑문은 단지 귀갑문만을 배열한 것이 아니라, 귀갑문 안에 동식물무늬나 금수문(禽獸文) 등을 넣어 화려하게 장식한 것들이 많다. 귀걸이 계통에도 경주 부부총에서 출토된 것에는 귀갑문안에 소화문(小花文)을 넣어 뛰어난 미의식을 보여주는 것도 있으며, 귀갑문만을 배열하여 단아하면서도 미적 감각을 살린 것도 있다.

이러한 귀갑문은 우리의 전통적인 공예품에서도 주요한 문양의 하나로 정착되어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벼루 등의 문방구류나 능화판, 지공예 등의 바탕무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죽은 이를 지켜주는 거북이

고구려의 고분벽화 중에서 사신도(四神圖)가 그려진 것은 요동성총 등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의 고분부터인데, 이때는 인물이나 풍속화가 같이 그려졌다. 하지만 6세기 말에서 7세기 사이에는 고분의 4벽이 사신도로 완전히 정착되었으며, 천정 등에는 신선·상서로운 동물·연꽃 등의 꽃무늬를 그린 형태로 나타난다. 사신도가 그려진 고분은 대개 후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중국에서 전래된 사신도의 영향에 의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사신도가 그려진 고분이 발견되었는데, 개풍의 수락암동 1호분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신도는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내고 우주의 질서에 따른 상징적인 동물을 그린 것으로 사령(四靈)이나 사수(四獸)라고도 한다. 특히 거북의 형상을 한 현무를 북쪽에 배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사신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나타난 바는 없으나, 오행설에 의한 영향이 높다고 하겠다.

고분 안에 거북의 형상을 한 현무가 북쪽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북에 대한 믿음이나 상징적인 면모가 남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거북을 상서로운 동물로 받아들였음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사신도의 배치는 죽은 이를 지켜주는 수호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그 권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호법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겠다.

4) 장수와 청빈함을 지니고 있는 학

학은 날짐승 중에서도 장수하는 동물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십장생의 하나로 뽑히기도 하였다. 또한 흰색의 몸통과 머리 등의 검은 색을 통해서 선비와 같이 고고함의 상징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학은 한글로는 두루미라고도 부르는데, 현재 천연기념물 202호로 지정될 정도로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1) 천년 이상을 사는 새

학은 십장생에 속하는 날짐승으로는 유일하다. 그 만큼 옛 조상들은 학이 오래사는 동물로 여겨왔다. 십장생의 동물로는 거북과 학, 사슴을 넣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학과 거북이다. 거북이 장수의 동물로 이해하였던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학이 이 부류에 속한다는 것은 생태적인 수명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학은 중국의 신선사상과 결합되면서 장수하는 동물로 자리잡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속담에 '학이 거북의 나이를 부러워 한다'는 말이 있다. 학은 천년을 살고 거북은 만년을 사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동물이 살 수 있는 수명이라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거북과 학의 수명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장수동물인 학을 문양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인 오래 살고자 하는 기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도자기나 동경(銅鏡) 등에 학이 많이 새겨지거나 그려진 이유도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다.

(2) 고고함과 청빈함의 상징

군계일학(群鷄一鶴) 닭무리 속에 학 한 마리라는 뜻을 지닌 고사성어다. 군중 속에서 뛰어난 사람이 한명 있어 이들을 지도한다는 말로 '닭이 천마리면 학도 있다'는 속담으로도 표현한다. 이 속담은 학을 뛰어난 존재로 받아들인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특히 학은 뛰어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고고함을 상징하고 있는 동물이기도 하다. '학은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거나 '학은 굶주려도 곡식을 먹지 않는다' 등의 속담은 학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여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학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일상적인 먹이를 취하지 않고 신선과 같이 어우어져 살기 때문에 남다른 방식, 즉 신선과 같은 생존방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학의 이미지는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인품이나 성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리잡았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벼슬아치의 상징적 표현이었던 흥배 중에서 학은 문관(文官)의 뜻한다. 즉 학이야말로 학문에 심취한 학자나 선비를 의미하였던 것이다.

복식으로서의 학창의(鶴氅衣)도 선비의 고결함을 상징하는 옷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학의 형태를 본따 흰색의 옷에 소매의 단이나 옷깃 등을 검은 선을 댄 형태를 갖고 있다. 학창의는 본래 우의(羽衣)라고 중국에서 불렀다고 하며, 학의 깃털 따위로 만든 옷을 의미했다고 한다. 즉 학이 상징하는 고결함을 지닌 인물이 입는 옷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덕망높은 학자나 도사 등이 이 옷을 입은 이유도 그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5) 천제(天帝)의 사자로서 나타난 사슴

흰노루가 신이한 동물로 인식되었다는 사정은 사슴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특히 사슴과 관련한 흥

미로운 부분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기록된 사슴 관련 내용이다. 여기에서 동명왕이 서쪽으로 순행을 하다가 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해원이라는 언덕 위에서 사슴을 거꾸로 매달고 저주를 내렸다. 즉 하늘이 비를 내려 비류왕의 도읍에 물난리가 나도록 만들지 않으면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슴이 슬피 울어 소리가 천제의 귀까지 사무칠 정도였는데, 그후 7일 동안 비가 내려 송양의 도읍을 표몰시켰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슴, 특히 흰사슴을 의미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대목이며, 또한 그 사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대목이다. 이 내용 만으로 본다면 흰 사슴은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의 역할이나 혹은 지상에 내려온 신의 예지를 알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노루가 고구려에서만 잡혔다는 것과는 달리 사슴을 잡았다는 기록은 삼국 모두에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 고구려가 노루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과는 달리 백제나 신라에서는 사슴만이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만하다.

흰 사슴을 상서로운 동물로 생각한 표현은 크게 고구려 태조대왕 46년과 백제 초고왕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태조왕은 흰사슴을 잡은 일이 엄청난 일인 것처럼 사슴을 잡은 지역의 신하를 불러 잔치를 베풀었으며, 물품까지 하사하고 그들의 공적까지 바위에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삼국의 흰사슴 사냥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신라만은 지방에서 사슴을 잡아 진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에는 왕이 직접 사슴을 사냥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신성한 사슴을 잡아 하늘에 제사드릴 제물로 사용할 경우 왕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은 사슴의 의미는 당시 사람들에게 신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동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십장생에 사슴이 들어가 있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슴이 오랜 동안 살 수 있는 동물로 인식한 것은 다른 동물과는 다른 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학과 마찬가지로

로 사슴 역시 하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여 영생하는 동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6) 상서로움과 지조를 지키는 새, 꿩

꿩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텃새의 일종이기 때문에 오랜동안 우리와 친밀했던 새라고 할 수 있다. 치악산이라는 지명도 꿩과 관련한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그런 사정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꿩에 대한 관심은 중국에서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규합총서》를 보면 중국의 고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즉 <주역>에는 꿩은 오행 중의 화(火)라 체가 문명하고 성품이 청렴하다고 하였으며, <예기>에는 성(性)이 강하고 절개가 있다고 하였다. <주례>에는 문체가 있고 절개가 곧다고 하였다. 즉 꿩의 생김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새의 성격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1) 꿩, 상서로움의 상징

꿩은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게 되었을 것이며,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다양한 이야기와 속신들을 만들어 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것은 꿩이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었다는 점인데, 다만 일상적인 꿩이 아니라 흰색을 띤 돌연변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삼국사기》를 보면 그런 기록이 자주 나타난다.

꿩에 대한 상서로움은 단순한 새의 의미이기 보다는 자기 색을 갖지 못하고 특이한 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꿩의 깃털이 흰색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식으로 볼 때 돌연변이의 속성을 지닌 색로 생각된다. 이러한 돌연변이적인 존재를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한 의미를 지녔다고 본 것이다. 예컨대 왕의 치적이 뛰어어나거나 태평성대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가 그것이다. 이러한 새의 출현은 단순히 의미를 뛰어넘어 하늘이 왕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은 까마귀가 아니라 붉은 색 까마귀가 출현했을 경우에도 왕에게 진상했다는 점은 그런 상상력을 갖기에 충분하다.

꿩을 상서로운 새로 생각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보탬을 주는 사례는 현재에도 찾아볼 수 있다. 농악대들이 앞세우는 농기(農旗)의 맨 위에는 꿩의 꼬리털을 묶어서 꽂아 놓았다. 신과 연결되는 깃발의 꼭대기에 꿩의 깃털이 놓여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신성성을 담고 있는 신물(神物)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마치 장식물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한 역할이 긍정화될 경우 꿩의 깃털은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마땅하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꿩의 꼬리가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것은 신과의 교통을 하기 위해서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꿩의 꼬리깃을 사용한 것은 매우 오랜 전통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조를 지키는 까투리

실존된 판소리 중의 하나인 <장끼전>은 꿩의 압수, 즉 장끼와 까투리를 주인공으로 삼은 내용을 담고 있다. 대략의 줄거리는 장끼가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고 덫에 걸려 죽게 된다. 과부가 된 까투리는 여러 동물들은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조를 지키다가 홀아비 장끼를 만나 혼인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장끼는 여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죽음을 당한다는 대목과 지조를 지키다가 장끼를 만나 재혼한다는 대목은 주목된다. 왜 이 두 대목이 주목될까. 이 판소리가 전승되던 시기는 조선시대였다. 조선시대에는 여필종부라는 대목이 강조되어 여자가 나서 것을 꺼리던 때였다. 오죽하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까지 생겨났을까. 또한 이 시기는 재혼이 금지되어 과부가 되면 평생을 수절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했다. 수절과부에게는 홍살문이 내려 이러한 덕목을 장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장끼전>에서는 당시의 윤리적 가치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조를 지켰다는 내용의 경우에는 당시의 윤리관을 반영한 내용이지만, 그러한 관념이 허물지던 시기의 사회상을 판소리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까투리는 조선시대의 여인상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점차 허물지는 과정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7) 상서로움, 그리고 예조적인 동물인 개구리

개구리는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받고 있을까. 우리가 보통 개구리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를 연상하게 된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한번씩은 읽어 보았던 동화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다. 하지만 개구리는 반대로 행동하는 상징물로 표현되기 보다는 보다 신성한 존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 상서로운 존재로 나타난 개구리

개구리가 신화시대에 등장하는 이유도 그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삼국유사> 동부여조의 해부루에 관련된 기사에서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해부루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뒤를 이을 아들을 구하였는데, 부루가 탄 말이 곤연(鯤淵)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왕이 기이히 여겨 그 돌을 굴리게 했더니 금빛 개구리의 형상을 한 어린아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다. 왕은 이 아이가 하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여 이름을 금와(金蛙)라고 지은 후 태자로 삼았다. 금와가 개구리의 형상을 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개구리를 신성한 동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개구리는 변화하는 동물의 하나이다. 알에서 올챙이로 변신했다가 꼬리가 떨어지면서 온전한 개구리가 된다. 이러한 변화의 동물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매우 신이한 동물로 인식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변신을 한다는 특징은 사람들에게 상서로운 동물로서 인식되고, 그러한 사고체계는 왕과 같이 존귀한 인물의 탄생담을 신이하게 만드는데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담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지닌 이야기로 경상북도 월성군에 채록된 것이 있다. 개구리가 빨래터에 온 처녀의 밑으로 들어가 잉태를 시켰는데, 그 아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 이야기는 이물교구담(異物交媾譚)의 하나로, 마치 견훤이 지렁이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설화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상서롭지 않은 동물로서의 개구리는 위의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재물을 가져다주는 신격체로 평가될 수도 있다. <개구리가 집에 들어오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는 속신의 경우도 개구리가 재복신(財福神)의 의미를 지닌 동물로 우리 민족에게 이해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설화는 은혜를 갚는 개구리 이야기의 유형이 전국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2) 미래를 예언하는 개구리

개구리가 문헌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미래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먼저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 유리명왕 때의 일을 들 수 있다. 즉위한 지 29년 되던 해에 모천(矛川)이라는 개울가에서 검은 개구리와 붉은 개구리가 떼를 지어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검은 개구리들이 싸움에 져서 모두 죽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북방의 색깔이 검은 색이니 북쪽에 있는 부여가 파멸될 정조라고 해석하였다. 부여는 그후 20년 뒤에 멸망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개구리의 해석은 오행사상에 나타난 색깔과 개구리가 금와왕의 상징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삼국유사>에도 선덕왕 관련기사에 개구리가 예조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묘사 옥문지에서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개구리떼가 모여 3 - 4일을 울었다. 사람들이 괴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물었다. 왕은 날쌔 장졸 2000명을 뽑아서 쪽 교외의 여근곡에 적병이 숨어있을 것이니 습격하여 죽이라는 명을 내렸다. 여근곡에는 백제 군사 500명이 내려와 숨어 있었는데, 이들의 기습으로 몰살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구리의 예언적인 기능은 일상적인 삶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비가 오려고 할 때 개구리가 운다는 사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개구리가 신이한 동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의 예조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개구리는 하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물로 이해했을 지도 모른다. <개구리가 많이 울면 장마가 진다>는 속신어가 형성된 것도 이러한 자연현상과도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3) 예술품에 나타난 개구리

개구리가 예술작품으로 형상화되기 시작하는 것

은 금와왕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기원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형상화된 유물로는 신라시대의 토우장식항아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국보 195호로 지정된 이 항아리에는 개구리 이외에도 가야금을 타는 사람이나 뱀 등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한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또다른 의미를 갖는 동물로서 인정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구리의 형상화는 재생이나 새로운 변화를 통한 변신을 꾀하고자 했던 당대의 민중적인 사고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개구리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민화나 연적 등의 형상물로 활용되는 동물로 나타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 백자동채와형연적(白磁銅彩蛙形硯滴)이나 백자청화채와형연적(白磁靑華彩蛙形硯滴), 그리고 이화여대 소장품인 백자와형연적(白磁蛙形硯滴) 등은 연적 자체를 개구리형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이 개구리를 연적의 한 표상으로 사용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들 연적이 문방구의 하나라는 점에서 문인들의 애용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학문적인 성취를 기원하기 위한 의도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몸을 움추려야 한다. 그러한 모습의 형상화는 자신들의 학문적인 성취를 위한 준비과정과 일치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민화 속에서 개구리가 그려진 예도 있으나, 많은 편은 아니다. 물가에 앉아 있는 개구리의 모습이나 모기를 잡아먹는 모습 등이 그려진 것 뿐이다. 민화 속에 나오는 개구리는 초충도(草蟲圖)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8) 태양과 효의 상징이었던 까마귀

까마귀는 검은 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가마고이'라는 어원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15세기에는 '가마괘'로 정착되어 나타난다. 까마귀가 검은색을 띠고 있는 새라는 점이 고대사회에서는 매우 상서로운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상서로움의 새가 흉조로 바뀐 것은 언제부터일까. 아마 조선시대

에 들어와 유교적인 이념적 바탕이 흑색을 불길함으로 인식하면서 생겨난 것은 아닐까.

(1) 태양의 상징으로 나타난 새

까마귀가 태양을 상징하는 새로 등장하는 예로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그려진 삼족오(三足鳥)를 들 수 있다. 이 새는 일반 생물학적인 의미의 까마귀라고 볼 수 없으며, 어떤 상징을 띤 동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까마귀는 일반적으로 불길한 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속신이 과연 오랜 옛날부터 그렇게 인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고구려에서는 삼족오가 태양의 상징으로 그려진 예가 있으며, 신라에서도 연오랑과 세오녀의 내용을 보면 태양과 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연오랑과 세오녀>를 들 수 있다. 연오랑 세오녀(延鳥郎 細鳥女)는 신라 8대 아달라왕 때의 인물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이름 가운데 한자가 모두 까마귀 오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양의 이치대로 따진다면 연오랑은 양이기 때문에 해이며, 세오녀는 여자로 음이기 때문에 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당대에는 까마귀가 새의 색깔과는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는 태양의 상징으로 까마귀가 등장하는 차이가 있다. 원래 태양을 상징하는 까마귀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상상의 산물로 생각된다. 전호태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대개 고분의 벽화 등에 삼입되어 나타나는데 한대(漢代)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중국에서 전해진 해의 묘사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도 차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집안에 위치한 고분에서는 태양의 가운데 공작형 벼슬을 갖고 있는 세발의 까마귀를 그려넣는 전통이 지속된다.

까마귀를 해의 상징동물로 채택한 것은 중국의 사고방식에서 만들어졌던 것이며, 이러한 전통이 고구려나 신라에서도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삼국시대에만 한정되어 나타난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까마귀가 죽음을 상징하는 흉조로 자리잡기 때문이다.

(2) 예조를 상징하는 새

옛문헌들을 보면 까마귀의 행위를 토대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점치는 일이 자주 나타난다. 이것은 까마귀의 행동을 주목한 결과이다. 왜 까마귀를 주목했을까.

《삼국유사》의 〈사금갑〉조를 보면 왕의 죽음과 관련한 사건을 미리 방지하려는 장치로서 까마귀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열쇠를 안내하는 역할을 까마귀가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결과는 정월 보름날 찰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내게 된 유래로 남게 되었다. 현재는 정월 보름에 찰밥을 먹는 풍속으로 변형되어 전승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고유 전통이었음을 알게 한다.

이 이야기의 내용으로 볼 때 까마귀는 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신(神)의 사자로서 출현하고 있다. 특히 이야기에 출현하는 돼지와 쥐, 말의 날에는 행동을 조심하고 바깥출입을 자제하는 날로서 풍속화되었다. 하지만 까마귀는 12지 동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인지 몰라도 정월 보름에 까마귀에게 찰밥을 지어 제사한다는 특이한 풍속으로 정착하였다.

왜 까마귀에게 제사를 올릴까. 그것은 왕을 구했던 까마귀의 직접적인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제사밥을 먹는 대상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때에 까마귀도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까마귀의 공을 높이 기리기 위해서 죽은 후에 만들어진 풍속이어야만 한다.

이 대목의 행간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부분이 이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까마귀의 죽음과 관련한 내용이 이 이야기속에서는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까마귀의 행동을 당시의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여 민간에서는 불행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까마귀를 긍정적인 동물로 생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3) 효자를 상징하는 새

까마귀를 '반포조(反哺鳥)'라고 한다. 반포란 까마귀가 어미 때는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어미새가 늙게 되면 새끼들이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 은혜를 갚는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다. 이를 반포보은(反哺報恩)이라고도 한다. 시조와 한시를 보면 까마귀의 반포를 주제로 해서 쓰여진 예가 있다.

까마귀 열두소리 사람마다 꾸짖어도

그 새끼 밥을 물어 그 어미를 먹이나니

아마도 조중증자(鳥中曾子)는 까마귀가 하노라

김수장이 쓴 이 시조에는 까마귀의 효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교훈적인 전달이 강하게 보이고 있다.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사람마다 꾸짖는다는 것은 까마귀 소리가 흉한 소식을 전한다는 일반 속신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하지만 그 까마귀는 어미를 위해 새끼가 모이를 물어다주기 때문에 새 중에서도 가장 효성이 지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4) 죽음을 상징하는 새

현재 우리는 까마귀를 죽음과 관련이 있는 새로 생각한다.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거나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속신이 있는 것도 그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죽음을 상징하는 새로 나타난 것일까. 삼국시대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태양의 상징물로 표현되고 또 신령한 새로 인식되던 것이 죽음을 상징하는 홍조로 바뀐 것일까.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까마귀 지나가자 배떨어진다는 말처럼 까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을 알려주는 저승사자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까마귀의 색이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색이라는 것과 일치한다. 검은 색에 대한 관념이 이와 같이 죽음으로 연결된 것은 오행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행 중에서 흑제(黑帝)는 북쪽을 의미하고, 어둠과 함께 겨울과 죽음을 상징한다. 탈춤에서 조동일이 젊음과 늙음, 여름과 겨울의 싸움으로 표현한 바 있는 이런 겨울의 존재는 어둠이나 죽음을 말한다.

따라서 까마귀색의 검정을 죽음의 색을 뜻한다. 오행사상의 유입이 삼국시대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까마귀를 어둠과 죽음의 상징으로 관념화한 것은 삼국시대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까마귀는 중국의 영향으로 태양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상징으로 새로 자리잡았음을 알게 한다.

9) 출세와 효를 완성하는 잉어

잉어는 우리나라의 강과 호수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종이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우리의 식량원으로 사용되었다. 잉어와 관련해서 예조적인 존재로 나타난 것은 《삼국유사》의 <해공왕>조의 기록만이 있다. 강주(현 진주)의 동쪽 땅이 꺼져 못이 되었는데, 홀연히 잉어 5 - 6마리가 생겨 점점 커지니 연못도 따라서 커졌다고 한다. 이러한 이상한 징조는 신라 말기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설명하고 있다.

잉어는 복을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것은 등용문으로 알려진 잉어의 개념에서 파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임산부가 잉어꿈을 꾸면 아들을 낳는다는 태몽이라고 한다.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출세를, 사업가에게는 사업이 성공함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1) 벼슬길을 상징하는 잉어

잉어가 벼슬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물고기로 자리잡은 것은 등용문(登龍門)이라는 고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등용문은 용문을 오른다는 뜻인데, 용문은 중국 황하의 상류에 있는 한 계곡을 말한다. 이곳은 물살이 매우 세기 때문에 물을 거슬러 오르는 회어류들이 쉽게 오르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 급류를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는 바로 용이 된다고 전해지는데, 이를 어변성룡(魚變成龍)이라는 고사성어로 표현된다. 그때의 고기가 바로 잉어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선비들의 방에는 잉어가 그려진 그림을 붙여놓고 과거에 급제하기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즉 과거를 위해 공부하는 선비는 잉어의 모습이고 잉어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것은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치루던 창덕궁 영화당 옆에 위치한 부용지의 축대에 잉어가 조각되어 있는데, 이 역시 과거에 급제하기 위한 선비들의 노력과 모습을 상징화 시켜 놓은 것이라고 하겠다.

잉어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예가 뛰어오르는 잉어를 그린 약리도(躍鯉圖)다. 약리도의 특징은 하늘을 보고 오르는 잉어로서 이런 수법은 물속으로 들어가

는 모습을 그리는 일본의 경우와는 정반대라고 하겠다. 또한 학자에 따라서 잉어의 머리모습을 보고 납근 모양으로 추정하여 아들을 낳기를 기원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2) 효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잉어

효자이야기 중에서 엄동설한에 잉어를 잡아 부모를 봉양했다는 내용이 많이 전해진다. 이것은 잉어를 효행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고기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강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잉어를 잡을 수 없었는데도, 잉어가 얼음을 깨고 나왔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읽을 줄 아는 존재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잉어에 대한 관념은 효계도(孝悌圖)라는 민화에도 반영되어 효를 그릴 때는 항상 표현되고 있다. 잉어를 소재로 삼은 이유는 <오륜행실도>에 수록된 왕상(王祥)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효행담 때문이다. 왕상은 효심이 깊어 계모가 추운 겨울에 잉어를 원하자 강가로 가서 얼음을 깨는데, 쌍잉어가 뛰쳐 나와 잘 봉양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행담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전파되어 효자와 효부들의 효행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왜 잉어를 원하는 것일까. 그것도 추운 엄동설한에 말이다. 잉어가 몸을 보신하는데 좋은 대상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 딸기를 구하는 효자이야기처럼 이 역시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교훈적으로 포장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 효행담을 의도적으로 전파시켰는데, 이것은 위정자들이 조선의 건국이념인 유교적인 도덕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10) 금슬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원앙

우리가 자주 말하는 날말로 원앙금침(鴛鴦衾枕)이라는 말이 있다. 신혼부부들의 상징물로 원앙을 선물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금슬이 좋으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의 조상들이 금슬좋은 부부를 가리킬 때 원앙같다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도 그런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원앙에 대한 이해는 중국의 고사

성어에서 유래했다. 《수신기》에 나오는 원앙지계(鴛鴦之契)라는 고사성어가 좋은 예이다.

이러한 사정은 그림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림을 보면 항상 원앙은 쌍으로 그려지며, 수컷인 원(鴛)은 오른편, 암컷인 앙(鴦)은 왼편에 배치된다. 이런 그림의 구도는 원앙이 항상 짝을 이루면서 활동한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원앙의 이해방식, '원앙같은 부부다'라고 하거나 '원앙도 짝을 잃으면 삼년간 홀로 산다'라는 속담에 표현된 것은 실상은 관념적 차원에서만 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원앙은 생물학적으로 수컷의 경우 무리를 짓고 다니기도 하지만, 단독생활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앙의 특징이 짝을 한번 이루면 다시 짝짓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해는 적절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앙에 대한 상징적 관념은 동물로서의 행동보다는 사람들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11) 복과 다남의 상징, 박쥐

박쥐는 양면적인 속성을 지닌 동물이다. 명칭에서 보다시피 쥐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텃새의 일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박쥐에 대한 이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이래로 가구나 도자기에 박쥐문양(편복문 蝙蝠文)을 넣는 예가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박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1) 복(福)과 다남(多男)을 의미하는 동물

가구나 도자기에 박쥐문양을 넣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째는 박쥐 복(蝠)이 발음상으로 복(福)자와 같기 때문에 복을 의미하는 동물로 생각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박쥐의 번식성과 관련한 내용인데,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박쥐문양을 넣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우리가 자수제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귀가 부귀다남(富貴多男)과 수복강녕(壽福康寧)이다. 그런데 이 글자를 하나로 합해서 표현되는 동물이 박

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쥐는 복(福)과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도로 많이 활용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2) 잡아먹으면 신선이 된다고 하는 새

《규합총서》에는 박쥐를 선서(仙鼠), 혹은 비서(飛鼠)라고 부르며, 오백살이 되면 희게 된다고 한다. 뇌가 무거워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박쥐를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데, 당나라 때 진자진이 먹고 갑자기 쇠약해져 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박쥐를 잡아먹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3. 문양으로 채택된 동물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동물들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원초적으로 인간의 사고방식과 결부되어 나타난 것이다. 단순하게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기 보다는 그러한 행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의지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동물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상징성은 차이가 있기도 하고, 반대로 비슷한 유형을 지닌 경우도 생겨난다.

특히 동물들에게 부여한 상징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조상들의 자연친화적 사상 배경을 엿보는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조상들이 한 동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단순한 생태적인 속성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왜 이러한 생각이 형성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농경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왔다. 농경이라는 것은 세월의 흐름을 체득하고, 이에 순응할 줄 아는 심성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모내기를 한 후에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만 벼를 수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생활도 이와 같은 시간적인 동화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체득한 것이다.

동물들에게 부여된 다양한 상징들도 그런 의미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동물들의 상징은 우리 문화의 기본축으로 작용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에 대한 인식은 가축을 중심으로 친밀도가 높으며, 이런 사정은 12띠 동물에게도 해당된다. 하지만 이런 영역

에서 벗어난 동물들의 경우에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까마귀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까마귀는 대개 죽음을 상징하는 새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삼국시대의 까마귀는 예조를 상징하거나, 태양을 상징하는 새로 자리잡고 있다. 신라의 연오랑 세오녀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도 그 흔적은 쉽게 찾아진다. 왜 이러한 편차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유교문화와 관련한 영향력인가, 아니면 도교의 오행에 따른 검은색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인가 등에 자세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작업은 현재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개 몇가지의 사례를 통해서만 논의가 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판단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야기와 신앙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화의 적층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동물을 이야기할 때 그 동물이 지니고 있는 상징과 행위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동물의 상징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그와 같은 상상력의 테두리에서 형성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의 상징은 우리 민족의 상상력과 인식, 그리고 이해의 사고방식을 집약한 것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인식 중에서도 복식에 표현된 동물들은 긍정적인 면만을 수용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동물에 나타난 부정적인 면은 거론하지 않았다. 복식에 긍정적인 동물상징을 담고 있는 이유는 복식 자체를 기복적(祈福的) 속성을 담고 있는 존재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식문화가 중국에서 유입된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표현된 동물의 모습은 우리의 사고와 관념이 동일한 수용되거나, 혹은 우리만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閩閩叢書》(鄭良婉譯), 寶晉齋, 1975.
- 《한국의 축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화의 탐구》, 민속원, 1996.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 1-1 ~ 9-3, 1980 ~1988.
- 具美來, 《한국인의 상징체계》, 교보문고, 1992.
- 김광언, 《민속지》, 朝鮮日報社, 1994.
- 김선풍 외, 《열두띠이야기》, 집문당, 1995.
- 김열규, 《韓國의 神話》, 一潮閣, 1976.
- 김의숙, 《쥐띠》, 국학자료원, 1997.
- 김종대, 《개띠》, 국학자료원, 1997.
- 羅景洙, 《韓國의 神話研究》, 敎文社, 1993.
- 류상채, 《신들린 사주풀이》, 녹진, 1993.
- 문무병, 《濟州島 堂信仰 研究》,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박대복, 《고소설과 민간신앙》, 계명문화사, 1995.
- 朴煥圭, 《光州의 傳說》, 光州直轄市, 1990.
- 심우성 외, 《한국의 전통예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 안길모, 《불교와 세시풍속》, 명상, 1993.
- 尹光鳳, 《朝鮮後期の 演戲》, 박이정, 1998.
- 이정재, 《동북아의 고풍화와 고풍신화》, 민속원, 1997.
- 이창식, 《호랑이띠》, 국학자료원, 1998.
- 이해화, 《龍사상과 한국고전문학》, 깊은샘, 1993.
- 임동권, 《韓國民謠集·Ⅲ》, 集文堂, 1975.
- 임동권 외, 《한국의 馬민속》, 집문당, 1999.
- 임종욱 엮음, 《고사성어대사전》, 고려원, 1996.
- 장주근,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98.
- 최덕원, 《남도의 민속문화》, 밀알, 1994.
- 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 通文館, 1984.
- 최준식, 《한국종교이야기》, 한울, 1995.
- 하효길·황효창, 《강사리범굿》, 열화당, 1989.
- 韓建德, 《꿈의 豫知百科事典》, 明文堂, 1991.
-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남도문화연구》, 1986.